

#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면접구술시험 인문·사회·통합계열 출제의도 및 해설

## • 출제의도 •

이 문제는 'COVID-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가 백신 접종을 서두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수험생의 역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의 초점은, 수험생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텍스트 독해력과 비판적 해석력,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당대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핵심 논지와 논거를 구성한 후 이를 표현하는 역량에 있다.

## • 제시문 해설 •

### 제시문 [가]

『감염병 인류』, 박한선/구형찬 지음, 창비, 2021, 287~292쪽(수정, 편집)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에서 백신 접종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감염병 확산의 문제를 바이러스 퇴치만이 아닌 사회적 이슈로 조망하고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논증한 글이다.

### 제시문 [나]

워싱턴포스터 5월 18일자 기사(한글 번역, 편집)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미연방 행정 당국의 조치를 비판한 간호사 조합의 주장을 보도한 신문 기사다.

### 제시문 [다]

이 글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규제 조치 완화를 둘러싼 각국의 사회정치적 변수들, 국가별 통계 자료 생성 방식의 차이 등 'COVID-19' 관련 몇몇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두 사람의 대화를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다.

### 제시문 [라]

제시문의 표와 그래프는 7개 국가의 백신접종률(그래프1)과 해당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화 내용(표1), 그리고 그중 E국가의 계층별 'COVID-19' 감염률과 백신접종률(그래프2)을 나타내기 위해 아래 그래프와 표를 참조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하고 수정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와 더불어 각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 1000명당 의료진의 숫자, 그리고 영아사망률을 함께 제시하였다.

## • 문제 해설 •

### [문제 1]

아래 내용 중에서 '백신 접종만으로 팬데믹 상황 종료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주장에 집중하여 유사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 좋은 답변이 될 수 없다. 반면 이와 같은 주장에 이어서 아래 내용 가운데 서너 가지 이상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부연하면 보통 이상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연한 내용이 상세할 뿐 아니라 팬데믹 상황을 지속시키는 세계 각국의 여러 현상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연결하여 이야기하는 경우 우수한 답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백신 접종만으로 팬데믹 상황 종료를 낙관하기 어렵다.
- 팬데믹 상황은 백신 접종만이 아니라 국가간 이동(세계화의 확장), 국가간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의 차이, 계층별 차이 등 사회적 환경과 조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바이러스의 확산은 백신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생활 환경과 의료 시스템, 사회 계층과 자본의 문제 등 사회 생태적 환경과 조건의 문제를 성찰하고 이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 국가의 백신접종률이 100%에 육박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기타 문제(국가별 감염병 관련 통제 정책과 규제 상황의 차이, 백신접종률의 차이, 종교와 문화의 차이, 국가별 발신 정보의 신뢰도 문제, 각국의 통계 자료 생성 방식의 차이-감염자수, 사망자수, 감염률, 백신접종률 등-)로 인해 팬데믹 상황 종료를 선불리 예측하긴 어렵다.
- 세계 각국이 대외신임도나 기타 사회정치적 이유 때문에 규제 조치 완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이것이 곧 해당 국가의 팬데믹 상황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백신접종률이 높아져도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은 여전히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 감염병 확산은 다양한 변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문제 2]

수험생이 출제의도를 빠짐없이 파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문제를 두 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험생이 답변을 할 때에는 두 문제를 연결하여 답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아래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되어야 우수한 답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혹은 '잘 사는 나라는 백신접종률이 높고 못 사는 나라는 백신접종률이 낮다', 혹은 '잘 사는 계층보다 못 사는 계층에서 감염률이 높다' 등의 단편적인 해석에 머물면서 '백신 접종만을 서두르지 말고 다른 조치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추상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경우 보통 혹은 그 이하의 답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답변의 상세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답변과 그렇지 못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인구 1,000명당 의료진의 수가 많으며, 영아사망률이 낮은 국가에서 백신접종률이 높다. 이것은 백신접종률이 각국의 사회/정치/경제적 조건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수치임을 보여준다.
-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나 종료 선언이 있었으나 반대로 이를 다시 강화한 국가들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제 조치 완화가 다시 강화로 돌아선 국면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새로운 이슈 발생 가능성이 있다.
- E 국가의 경우 백신접종률이 높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가 있었지만 계층별 백신접종률이 다르며,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백신접종률이 낮고 감염률이 높아졌다. 한 국가의 전체 백신접종률이 높다 하더라도 계층별 백신접종률과 감염률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국가 내 전반적인 상황을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국가별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의 차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한 국가 내 계층별 백신접종률 및 감염률의 차이, 직업별 안전도의 차이, 국가별 정치적 상황(팬데믹 상황 종료를 서둘러 선언함으로써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문제), 국가별 대외신인도 관리 문제 등 사회생태적 환경과 조건의 문제를 고려할 때 백신접종률의 증가만으로 팬데믹 상황 종료를 예측하기 어렵다. 선불리 상황 종료를 예측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조치에 나섰을 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그래프 및 표의 해석 내용과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잘 연결해서 말하는 경우 매우 우수한 답변이 될 것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국경 봉쇄,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확산 등의 문제를 부연하여 말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유입자 차단 및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도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을 언급하거나 이를 세계화 현상에 맞물려 지적하는 경우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러스 확산을 백신으로 완전히 물리칠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사회적 조치들을 상세하게 언급하는 경우, 감염병 대응을 백신 대 바이러스라는 단순한 대결 구도로 인식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경우에도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

